
정책참고자료

2016-2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장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현장 점검	4
----------------------------------	---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위해 시민단체와 소통의 자리 열어	5
--------------------------------	---

3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6
-------------------------------	---

4 교육부

「교육기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발표	9
---------------------------	---

5 미래창조과학부

다가오는 2018년, 미리 만나는 평창 ICT 올림픽	18
-------------------------------	----

6 문화체육관광부

제6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개최	24
------------------------------	----

7 농림축산식품부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28
-------------------------------------	----

8 환경부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35
----------------------	----

9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 투자기업이 앞장선다 _____ 42

10 여성가족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족친화경영 평가’ 확산 _____ 44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차관, “강원도 스마트케어 규제프리존 협조” 당부 _____ 45

12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 _____ 46

국민안전처 장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현장 점검

- 경기충북 등 AI 발생지역 특별교부세 52억 긴급지원 -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11월 29일(화) 오후 세종시 AI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소정면 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하였다.
 - 박장관은 금번 발생한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으로 병원성도 높고 전파력이 강하다면서,
 -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농장 소독 등 현장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도 적극 활용할 것과 함께,
 - 방역은 물론 농장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시·도에 총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지원은 AI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국민안전처는 안전감찰을 통해 지자체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AI 상황관리 대책반」을 가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위해**시민단체와 소통의 자리 열어**

오늘(23일)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대표자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10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 시민단체는 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소수·약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개선과 고충민원 처리 등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분야의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권익증진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 각 분야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소외 계층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민관협의체로 2014년 4월 발족되었다.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11.28(월)~29일(화), 서울 코엑스(COEX)에서 성황리에 개최

-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123개 주요 공공기관 참가
-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 2천명이 행사장에 방문, 취업준비생들은 NCS 채용 방식에 많은 관심 표명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28~29일간 서울 COEX에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였다.

- 동 행사는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취업준비생들에게 현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2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21,7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참가인원 : (11) 18,178 (12) 17,152 (13) 18,046 (14) 18,250 (15) 18,517 (16) 21,702

□ 박람회 현장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123개 공공기관이 채용상담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내년도 기관별 채용정보를 듣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현장의 열기가 대단하였다.
- 특히,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내년도 채용규모가 큰 기관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였다.

* '17년 채용 예정인원 : (한전) 1,271명, (건보공단) 1,050명, (인천공항) 228명

□ 또한, 방문객들은 내년도부터 전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NCS 채용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기관별 채용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공개면접이 진행되었던 NCS 모의면접관의 경우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방문하였으며,
- NCS 직업기초능력시험(필기시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NCS 직업기초능력시험검사관에도 이틀간 총 2,000여명이 방문하였다.

□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조사인원 : 500명) 결과에 따르면,

- 조사인원의 71%는 박람회 행사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조사인원의 61%는 본 행사가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채용정보가 담긴 자료*를 채용정보박람회 홈페이지(<http://job.alio.go.kr>)에 게재하여,

* 자료명 : 「한 눈에 보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계획」

-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도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발표

-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 구축 -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올해 첫 시행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의 선정결과를 11월 22일(화) 발표하였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

유형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대학 /학교	기업	민간 단체	개인 사업장	학원*	계
인증 기관 수	111	93	147	144/8	46	68	79	25	721

* 직업 학원(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미용, 간호, 연예인, 항공승무원 등)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 8월 15일 공고되었으며,
- 인증을 신청한 1,0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개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21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진로체험기관의 의지 및 성격(9점), 체험처 환경 및 안전(9점), 체험프로그램 운영(12점) 등 3개 영역 10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양질의 체험처이다.
- 특히, 진로체험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신청기관의 영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 선정된 기관은 학생들로부터 강사비, 재료비 등 진로체험 경비 일체를 직접 받지 않으며, 학교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의 업무소개와 강의를 제공하며, 기록관리에서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멘토링이 진행되며,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보존상자 만들기, 종이기록물 복원과 같은 실제 업무와 유사한 체험활용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음. 매년 모든 프로그램을 4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30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민간 건축사 사무실로 공간화 체험을 통한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과정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건축가가 하는 일, 건축의 과정 등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우드락,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체험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2년부터 총 40회를 운영하여 약 1,08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 선정된 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의 인증효력 기간 동안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 또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홈페이지에 인증 사항 탑재, 우수프로그램 홍보,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 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 한편,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실적 이 없는 경우, 기타 인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된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조건 >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적절성·유의미성, 교육적 중립성,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확보
- 체험활동 공간·시설의 비유해성, 쾌적성 및 안정성 확보
- 무료* 진로체험 기회 제공
 - *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체험비 청구는 불가하며, 학교, 교육청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체험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재료비만으로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실적 의무적 제출 등

□ 교육부는 2020년까지 매년 4회 인증심사를 통해 약 2만개의 기관을 인증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로체험처를 확보할 계획이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1부.
2.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1부.

<강원, 대구, 경북권>

연 번	기관명	유형	프로그램 분야
1	경주준법지원센터	중앙부처(산하)	준법 지원센터와 청소년 관련 법에 관한 진로체험
2	구미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산림공무원 직업인 만남, 숲해설 진로체험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부처(산하)	직업(과학수사)관련 체험
4	국립동해검역소	중앙부처(산하)	직업체험(검역관) 관련 체험
5	국립포항검역소	중앙부처(산하)	검역관이 하는 일 진로체험
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영주위성항 법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업무관련 체험
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성주위성항 법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업무관련 체험
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춘천위성항 법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업무관련 체험
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평창위성항 법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업무관련 체험
10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숲, 목공예 관련
11	대구기상지청	중앙부처(산하)	기상관련 체험
12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준법지원센터)	중앙부처(산하)	보호관찰, 진로상담 및 심리치료 진로체험
13	대구세관	중앙부처(산하)	세관(밀수)업무 관련 체험
14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중앙부처(산하)	검찰수사관 진로체험
15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중앙부처(산하)	취업 및 진로지도 관련 체험
16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중앙부처(산하)	직업(판사)기관관련 체험
17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중앙부처(산하)	모의 법정 및 법정 진로체험
18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앙부처(산하)	직업(법무부 보호직 공무원)관련 체험
19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숲, 생태, 목공예 관련 체험
20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숲, 목공예 관련 체험
21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숲, 목공예, 승마 관련 체험
22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중앙부처(산하)	숲,목공예,산불예방 관련 체험처
23	상주교도소	중앙부처(산하)	법관련 체험
24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진로 직업체험(생물학자, 안전관리 전문가)관련 체험
25	영덕경찰서	중앙부처(산하)	경찰 진로체험
26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중앙부처(산하)	선거행정직 공무원 진로체험
27	영월교도소	중앙부처(산하)	교도소 현장 견학 체험
28	영주소방서	중앙부처(산하)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29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중앙부처(산하)	직업(환경전문가, 야생생물전문가)관련 레인저 체험
30	원주교도소	중앙부처(산하)	법관련 현장(교도소) 체험
31	원주지방환경청	중앙부처(산하)	직업(미래그린리더)관련 체험
32	정선국유림 관리소	중앙부처(산하)	공예(목공)관련 체험
33	춘천청소년 꿈 키움 센터	중앙부처(산하)	법관련 체험
34	포항교도소	중앙부처(산하)	준법에 대한 진로체험
35	경산소방서	지자체	미래소방관 진로체험
36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	지자체	1일 사서 직업 체험
37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지자체	환경 관련 전문직업인 만남 진로체험
38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지자체	1일 사서 직업 체험
39	김천소방서	지자체	미래 소방관 진로체험
40	문경교육지원청	지자체	과학(발명)관련 체험

41	문경소방서	지자체	직업(소방관)관련 체험
42	상주소방서	지자체	직업(소방관)관련 체험
43	상주시청	지자체	직업(공무원)관련 체험
44	속초시청(교육문화체육과)	지자체	직업체험(공무원) 관련 체험
45	안동소방서	지자체	소방훈련 체험
46	영덕군청	지자체	행정공무원 진로체험
47	영덕소방서	지자체	미래소방관 진로체험
48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지자체	힐링농업(원예)관련 체험
49	예천군청	지자체	일일 공무원 진로체험
50	예천농업기술센터	지자체	우리쌀 활용 식문화 관련 진로체험
51	울진소방서	지자체	직업(소방관)관련 체험
52	의성소방서	지자체	직업(소방관)관련 체험
53	청도군청	지자체	일일공무원, 군의정활동, 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
54	칠곡소방서	지자체	미래소방관 진로체험
55	포항남부소방서	지자체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56	포항북부소방서	지자체	미래소방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57	홍천소방서	지자체	직업체험(소방공무원)관련 체험
58	경북청소년수련원	공공기관	숙박형 수련활동을 통한 진로체험
59	경북대학교병원	공공기관	대학교 병원 견학 프로그램
6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공공기관	의료인이 되기 위한 길 진로체험
61	영덕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사서가 들려주는 도서관 진로체험
6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공공기관	문화재 관련
63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 사무소	공공기관	국립공원 탐방객 사고 예방 및 구조, 문화재 조사에 대한 진로체험
64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국립공원 식물, 안전관리, 환경교육 진로체험
65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기관	직업(안전관리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관련 체험
66	국립공원관리공단(운문산생태탐방센터)	공공기관	생태 진로체험
6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공공기관	자연과학(유산균, 곰팡이,식물)관련 체험
68	국립대구과학관	공공기관	3D프린팅,아두이노 등 과학관련 진로체험
69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공공기관	환경과학관련 체험
70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청소년 문화강좌(호신 태권도, 타로카드, 웹툰)관련 체험
71	속초시립박물관	공공기관	인문학, 큐레이터 관련 체험
72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공공기관	미디어(뉴스,라디오)관련 체험
73	영월군청소년수련관(진로체험센터)	공공기관	네일아트관련 체험
74	영천시청소년수련관	공공기관	현장직업(전문직업인, 예술체육)관련
7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공공기관	전시관람 작품설명 및 작가와의 멘토링 관련
76	의성조문국박물관	공공기관	역사문화(석기,곡옥,목간편지,상감,나전칠기만들기 등)관련
77	청송군청청소년수련관	공공기관	진로콘서트, 직업인 특강 진로체험
78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	진로탐색(관광산업)관련 체험
7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기관	꿈을 잇(it)다 소플웨어스쿨
8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	공공기관	연어생태관련 체험처
81	경동대학교	대학	학과체험(관광경영, 안경광학, 토목, 외식사업, 간호, 치위생, 항공경영 등)
82	경북전문대학교	대학	전공학과(비즈니스, 호텔관광경영, 물리치료사 등) 관련 체험

83	경일대학교	대학	전공학과(과학수사, 로봇제작, 소방안전 등)관련 체험
84	경주대학교	대학	대학학과 탐색 및 체험
85	계명대학교	대학	전공학과(사범,공과,예술,체육, 경찰행정 등)관련 체험
86	계명문화대학교	대학	전공학과(소풍물, 보컬리스트, 구연동화 등)관련 체험
87	김천대학교	대학	진로진학전공 체험
88	대경대학교	대학	체육,예술(태권도, 경호, 뮤지션, 연극 등)관련 체험
89	대구공업대학교	대학	학과(전자공학, 조리사, 바텐더, 승무원 등) 체험
90	대구과학대학교	대학	전공학과(간호사, 시큐리티, 네일아트 등)관련 체험
91	대구교육대학교	대학	자유학기제 관련 체험
92	대구대학교	대학	대학교교연계체험활동
93	대구보건대학교	대학	전공학과(노인생애체험, 심폐소생술, 화재예방 등) 관련 체험
94	세경대학교	대학	보육교사, 모래놀이치료, 과학수사체험및 호신술, 카지노딜러, 제과제빵 등
95	안동과학대학교	대학	학과체험(간호, 보건, 전기치료, 응급 심폐소생술 등)
96	안동대학교	대학	대학방문관련 체험
97	영남이공대학교	대학	전공학과(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관련 체험
98	영진전문대학	대학	학과체험(유치원, 신재생에너지, 기계설계, 심폐소생술, 마이크로프로세서동작체험)
99	한국폴리텍대 대구캠퍼스	대학	전공학과(컴퓨터, 전자회로, 로봇공학 등)관련 체험
100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섬유패션 캠퍼스	대학	공예(패브릭, 패션소품, 액세서리 제작)관련 체험
101	한라대학교	대학	학과체험(경영, 무역통상, 레저 관광 등)
102	한림성심대학교	대학	학과체험(디자이너,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103	호산대학교	대학	학과체험(건축디자인, 간호사, 네일아트 등)
104	경북인터넷고등학교	학교	가족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체험
105	상산전자고등학교	학교	전자키트조립 및 제작관련 체험
106	용운고등학교	학교	승마 힐링 관련 체험
107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교	임산물을 이용한 진로체험
108	(주)강원도시가스	민간기업	직업(도시가스)관련 체험
109	(주)들길	민간기업	목공체험
110	LG베스트샵 김천중앙점	민간기업	전자제품 유통과정 진로체험
111	강원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	민간기업	목재 유통 체험
112	다드림교육지원센터	민간기업	전문직업인 초청 등 각종 직업체험
113	로제니아호텔	민간기업	호텔 업무 이해 및 업무 체험
114	삼탄아트마인	민간기업	치유(언어, 음악, 미술)관련 체험
115	(사)한국교육전문가협회	민간단체	나만의 꿈노트, 나만의 책만들기 진로체험
116	경상북도청소년성 문화센터	민간단체	남녀 성 이해, 장애아동성인권 진로체험
117	국립등대박물관	민간단체	박물관 체험 및 견학
118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민간단체	역사(태극기탁본, 독립운동사)관련 체험
119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민간단체	기후변화 대응 교육 관련 체험
120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민간단체	청소년 진로(요리사, 바리스타)관련 체험
121	임업인종합연구소	민간단체	임업의 이해와 목공 진로체험
122	조선민화박물관	민간단체	민화관련 체험
123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	민간단체	전문직업인 강의 및 연수 진로체험
124	청송문화관광재단	민간단체	요리, 천연염색, 한지 공예, 압화 공예, 도예 체험
125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민간단체	청송로컬푸드 이용 요리사 직업체험
126	하회동탈박물관	민간단체	문화재(탈, 큐레이터)관련 체험
127	한국수달연구센터	민간단체	생태(수달과 친구하기)관련 체험
128	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민간단체	한지공예 관련 체험

129	강원 미즈평생교육원	개인사업장	일러스트, pop글씨 관련 교육
130	단산도예	개인사업장	도자기 만들기 진로체험
131	동성자동차정비공장	개인사업장	자동차 구조 이해, 점검 업무 진로체험
132	라온농장	개인사업장	직업(원예치료사)관련 체험
133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개인사업장	숲해설, 목재문화, 목공관련 진로체험
134	순조된장	개인사업장	다도, 장담그기, 천연발효식초 만들기 진로체험
135	안다미로귀때박물관	개인사업장	박물관, 공예, 요리, 문학 관련 진로체험
136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개인사업장	말관련 진로체험 및 승마 체험

□ 중앙부처(산하기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의 업무소개와 강의를 제공하며, 기록관리에서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멘토링이 진행되며,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보존상자 만들기, 종이기록물 복원과 같은 실제 업무와 유사한 체험활용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의 업무를 체험해볼 수 있음. 매년 모든 프로그램을 4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30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 지자체

(파주시청_경기도) 2015년 9월부터 매주 둘째·넷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시청의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파주 홍보물제작(정책홍보), 모의예산편성해보기(기획예산), 세정과 7개 팀 선택 체험(세무행정) 등 35개의 실무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시청의 거의 모든 직군(총 21개 분야 42개부서)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시장직인이 들어간 이수증을 발급하여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공무원 진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함.

□ 공공기관

(재료연구소_경남)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국책 연구소로, 연구소 견학, 차세대 기술 VR을 결합한 체험, 연구원과 함께 하는 멘토링 등 구체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 제작한 학생용 매뉴얼과 실습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16년 600여명의 학생들 프로그램에 참여함.

□ 대학

(한남대학교_대전)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단순학과체험을 넘어 창업, 중학생을 위한 교육극, 고교생을 위한 건축캠프, 오감만족을 통한 두드림 전공체험, 마술숙의 수학적 비밀 등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6년 6,000여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

□ 민간기업 및 학원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민간 건축사 사무실로 공간화 체험을 통한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과정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건축가가 하는 일, 건축의 과정 등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우드락,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모형 만들기 체험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2년부터 총 40회를 운영하여 약 1,08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포유맥시스템) 컴퓨터 박물관 체험, 관련학과 및 직업 소개 등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200여 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역사와 인쇄의 발달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 15명 내외 소규모 체험으로 전문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며 '16년 약 27회 프로그램에 385명의 학생이 참여함.

((주)MBC아카데미뷰티스쿨 _대전) 2015년 대전시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기관으로 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성형메이크업, 특수분장, 스타일리스트, 네일아트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 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 복지관, 문화의 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50여개 학교에 무료로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교육기부취지에 부합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가오는 2018년, 미리 만나는 평창 ICT 올림픽

-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세미나」 개최 -

- 평창동계올림픽, K-ICT 대도약(Quantum Jump) 계기로 만든다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평창조직위와 강원도, 케이티(KT), 서울방송(SBS) 등과 함께 11.16(수), 14:00 서울 엘타워에서 산·학·연 관계자 및 주한 외국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2018, 미리 만나는 평창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ICT 발전지수 1위 국가’로도 선정된 ICT 강국인 만큼, 평창올림픽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K-ICT 올림픽’으로 치를 계획이다.

※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올림픽,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올림픽, 감동의 초고화질(UHD) 올림픽, 똑똑한 지능정보(AI) 올림픽, 즐기는 가상현실(VR) 올림픽

○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평창ICT동계올림픽 추진 TF회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ICT 평창동계올림픽 실현전략(‘16.5.)」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창올림픽을 ‘빠르고·편하고·스마트하게 즐기는 K-ICT 올림픽’으로 치루고 ICT 수출과 관련산업 발전의 발판으로 삼기위한 그간의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남은 1년여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우선,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전시·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사물인터넷(이하 IoT), 초고화질 방송(이하 UHD), 인공지능(이하 AI), 가상현실(이하 VR) 등 평창올림픽에서 구현될 5대 분야 K-ICT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다.

* 5G 홀로그램라이브, IoT 기반 참여형 올림픽 관람·안내, 지상파 UHD방송, AI

자동통번역, VR 스키점프 시뮬레이터 등

< 평창올림픽에서 구현될 대표적 ICT 서비스 모습(안) >

- ▶ 현재보다 20배이상 빠른 5G 통신 환경 및 연계서비스(홀로그램 등)를 경험하게 되며, 입출국·교통·숙박 등 IoT와 결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임
- ▶ 지금보다 4배이상 선명한 UHD 지상파 방송을 통해 올림픽의 감동이 배가되고, 한국의 관광지 및 동계스포츠 종목 등을 VR을 통해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될 것임
- ▶ 아울러, AI에 기반한 한국어와 8개 외국어간 자동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 없이 하나 되는 올림픽이 실현될 것임

○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미래부장관, 강원도지사, 서울방송사장, 평창조직위 사무총장 등의 축사에 이어, 미래부에서 **평창ICT동계올림픽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발표와 함께,**

- **주요 기관별 ICT 올림픽 준비상황 발표***와 성공적 평창 ICT 올림픽 추진 및 사후활용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 세계최초 5G 올림픽 준비현황(케이티), 편리한 IoT 올림픽 준비현황(정보화진흥원), UHD 올림픽 준비현황(서울방송), ICT 올림픽 레거시 연계 활용방안(강원도)

□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의 우수한 IC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ICT 서비스·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 “평창올림픽에서 제공될 ICT 서비스·제품들은 서로 융합되어 구현될 때 시너지 효과가 큰 만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준비 과정에 있어 정부부처 및 올림픽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력과 협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추진 배경

- 평창 테스트이벤트('16.11.~'17.4.) 및 평창올림픽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평창ICT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와 봄 조성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 행사명 : '다가오는 2018년, 미리 만나는 평창 ICT 올림픽'
- 일시·장소 : '16.11.16(수) 14:00~16:15, 양재 엘타워(6층 그레이스홀)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 후원 : 평창조직위, 강원도, ETRI, 한국전파진흥협회, SBS, KT, 한컴인터프리
- 참석 : 미래부 장관, 강원도지사, 평창조직위사무총장,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 주한대사('26동계올림픽 유치희망 캐나다, 우크라이나), 유관기관 (ETRI 원장, NIA부원장), 업계 (SBS 사장, KT 부사장, RAPA 부회장),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

시 간	내 용	비 고
◆ 전시 관람 및 세미나 개최		
13:45~13:50 (05')	▪ 5G 버스 시연	(엘타워 주차장)
13:50~14:00 (10')	▪ 내빈 환담	(6층 귀빈 대기실)
14:00~14:15 (15')	▪ 미리보는 평창K-ICT 체험관 (5G, IoT, UHD, AI, VR)	(6층 로비)
14:15~14:18 (03')	▪ 세미나 개최 및 내빈 소개	
14:18~14:20 (02')	▪ 평창ICT동계올림픽 홍보동영상 상영	
14:20~14:40 (20')	▪ 축하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김진원 SBS사장 여형구 평창조직위사무총장
14:40~14:55 (15')	▪ 발표 : 평창ICT올림픽 추진현황 및 계획	평창ICT올림픽추진팀장
14:55~15:00 (05')	▪ 기념 촬영	
◆ 발표		
15:00~15:30 (30')	▪ 5G 분야 세부 추진현황 (KT)	KT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장
	▪ IoT 분야 세부 추진현황 (NIA)	NIA ICT융합본부장
	▪ UHD 분야 세부 추진현황 (SBS)	SBS UHD추진팀장
	▪ ICT 올림픽지역 연계방안 추진현황 (강원도)	강원도 정보산업과장
◆ 패널 토론		
15:30~16:15 (45')	▪ 성공적 평창ICT올림픽 추진방안 ▪ 올림픽이후 사후활용 및 해외진출 방안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조직위 정보통신국장 강원도 정보산업과장 NIA ICT융합본부장 KT 평창추진단장 SBS UHD추진팀장 성균관대 이윤덕 교수

□ “미리보는 평창 K-ICT 체험관” 전시·시연 내용

분야	전시 내용 (총 14종)	
5G (3종)		▶ 5G 버스 차량 내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 5G 네트워크 기반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화상회의 등을 체험
		▶ 홀로그램 라이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와 관련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구현 4개의 면에서 동시에 체험자가 홀로그램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
		▶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동계올림픽 종목의 경기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하여 순간적인 동작 시연 관람객이 직접 원하는 타이밍과 각도를 화면 터치를 통해 선택하여 볼 수 있음
VR (2종)		▶ VR 스키점프 시뮬레이터 평창의 스키점프대에서 촬영한 영상을 VR 고글과 스키 시뮬레이터로 체험
		▶ VR 360° 동계올림픽 관련 영상을 VR 고글을 통해 360° 영상으로 구현 쉽게 접하기 힘든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의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음

분야	전시 내용 (총 14종)	
IoT (5종)		▶ 참여형 올림픽 관람·안내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경기, 시설 정보안내 및 참여형 응원* 서비스 제공 * 사이니지에 접근하면, 체험자의 사용 언어, 주변날씨 등 AI에 기반한 환경 분석을 통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의 환영인사와 함께 응원 영상메시지를 업로드 할 수 있음
		▶ 루지 IoT 이미지 트레이닝 평창 슬라이딩 센터의 3D 공간정보를 360도 VR 영상으로 구현하여 선수들의 실전 경기 이미지 트레이닝에 활용 선수들의 상상에 의존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시연
		▶ One-Pass 밴드(결재) 교통, 숙박, 관광지 등에서 사용가능한 손목형 One-Pass 밴드 체험
		▶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실시간 입장 계수 단말을 현장에 설치, IoT기반의 스마트안전관리 서비스 시연
		▶ 스마트 쇼핑 동작을 인식하는 Gyro 비콘이 부착된 스마트 행거를 들면 멀티스크린을 통해 해당 상품의 정보를 노출 스마트 행거와 함께, 피팅미러에 접근하면 해당 상품을 착용한 360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음

분야	전시 내용 (총 14종)	
		▶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시연 ‘17.2월 본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시연
UHD (3종)		▶ 개인·소셜방송서비스 시스템 시연 개인의 모바일디바이스로 올림픽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체험자는 세미나 현장과 참석자 인터뷰 영상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 직전 제작된 동계올림픽 준비현황 영상을 VOD 서비스로 제공받음
		▶ UWV(Ultra Wide Vision) 일반TV 화면에 비해 고화질(HD대비 8배), 압도적 크기(15m×3.8m)의 곡면형 스크린을 통해 현장감 극대화(대화면 실감영상 체험)
AI (1종)		▶ 자동 통번역 인터넷 연결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자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인식 통역, 문자입력 번역, 이미지내 문자 번역 등 자동통번역서비스 체험

제6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개최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 채택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철 의원, 간사: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하 특위)가 제6차 전체회의(11. 29.)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후원 지원을 촉구 및 권유하는 결의안을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관심과 후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부부처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비용 조달, 자금의 안전한 보관, 각종 금융거래 등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후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준비상황 및 2017년 관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6. 11. .

제안자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 한다)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성공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관심과 후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부부처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올림픽 후원 및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 후원 및 기부 단체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3.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회 운영을 위

한 비용의 조달과 자금의 안전한 보관, 금융거래 등 올림픽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금융기관 후원사의 선정이 성공적인 올림픽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후원 기업 등으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다할 것을 권유한다.

4.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창 올림픽 후원으로 인한 경영실적 평가 불이익 방지와 가점 부여 방안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올림픽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경제·문화·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한류 등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100여개국 5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의 출입국에서부터 숙박 및 관광객 수송, 전력 공급, 경기 진행, 금융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

특히, 대회 운영을 위한 비용의 조달 뿐만 아니라 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후원사의 선정이 시급하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후원사가 결정되지 않아 올림픽 준비에 어려움이 많음.

2010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 등 해외의 올림픽 사례에서도 전력, 철도, 공항, 가스 등 공공기관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핵심적인 후원분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대회에 기여하였음.

각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해당 분야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재원 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각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올림픽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창올림픽 후원으로 인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불이익 방지와 가점 부여 방안 등 정부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함.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월드컵이나 하계 올림픽과 달리 마케팅 수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전력, 철도, 공항, 가스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 및 권유하려는 것임.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효율화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주 요 내 용 》

◆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유통환경 조성

◆ 목표 :

- 축산물 유통 효율화로 유통 비용 절감
-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선으로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 전략 :

- ①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협동조합·민간 패커, 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4~6단계 → 2~3단계)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제 강화
- ②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축산물유통실태 및 가격 정보 공개 확대
 - * 농협 정육식당 : ('15년) 400개소 → ('20년) 600
 - * aT 사이버 거래 : ('15년) 7,730억원 → ('20년) 1조 800억원
 - * 국내산 및 수입산 유통단계별 가격동향조사 및 정보 공개
- ③ (축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정비, 육가공산업 활성화로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 * 쇠고기 등급제 개선 및 돼지고기 기계판정 도입, 계란 닭 오리고기 자체품질평가제도 도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15) 8,323 → ('20) 12,000개소
 - * 부산물 거래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혈액자원화 추진
- ④ (유통관련 제도 개선) 거래증명 서류 간소화로 행정비용 절감, 돼지 거래관행 개선
 - * 거래증명 서류간소화 : (현행)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 → (개선) 거래증명통합증명서 1종
 - * 돼지거래 방식을 생체중량에서 탕박, 등급, 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후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지비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4대 분야에 11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 이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 분야	11대 주요과제
1.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 체계 구축으로 유통효율화	①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② 거점도축장을 민간패커로 육성 ③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강화
2.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①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② 사이버거래 등 新 유통 확대 ③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정보 제공 확대
3.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①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② 육가공 산업 활성화 ③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4. 유통관련 제도 개선	① 거래증명 제도 개선 ② 돼지 거래관행 개선

< 주요 내용 >

○ 첫째,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 (안심축산) 유통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전속 출하 확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판장 중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가공·유통기능까지 확대하여 패커시스템 완성을 추진한다.

* 산지조달 비율(경매/산지조달) : ('15년) 67 / 33% → ('20) 20 / 80%

- (품목조합) '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하여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 품목조합 점유율 : ('16) 소 1.7/돼지 6.2% → ('20) 소 8/돼지 15%

- (거점도축장) '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을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미흡업체는 지정 취소 또는 자금회수를 추진한다.

* 패커로 성장 가능성이 큰 도축장을 심사를 통해 거점 도축장 5개소 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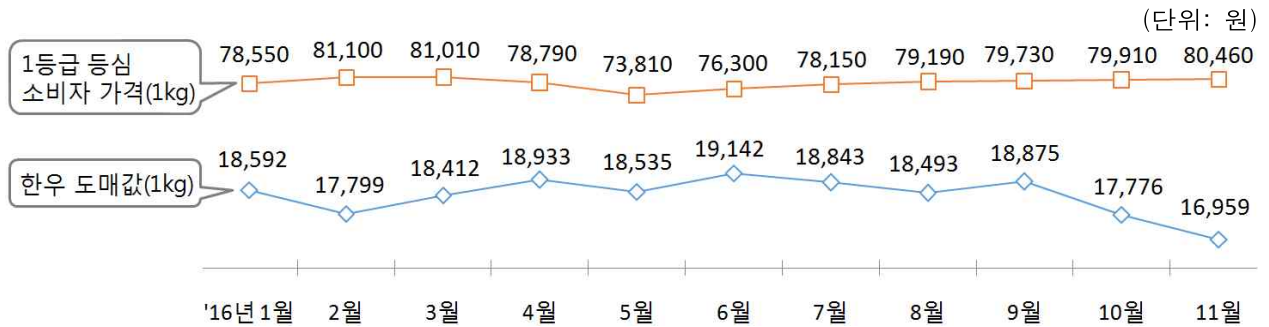
- (축산 브랜드 육성 강화)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브랜드육 월출하 규모인 최소사육두수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

* 경영체 사육규모 : (한우) 20천두 → 40천두, (돼지) 모돈 5천두 → 7천두

○ 둘째,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 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후 가격동향 분석결과, 6월~11월 중순까지 한우 1등급 지육가격이 kg당 19→17천원으로 하락하였으나,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76→80천원으로 상승하여 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산지·도매·소비지 한우가격 흐름 >



-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확대,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확대한다.

* 정육식당 확대('15년, 400개소→'20년, 600), 하나로마트 판매장 직영화(2,062개소)

* 로컬푸드 : ('15년) 103개소 → ('16년) 140 → ('17년) 170

* 직거래 사업 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16년 120억원)

· 지원품목 : (현행) 한우 → (개선) 한우·육우

· 지원대상 :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조합

→ (개선) 도축장, 지역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추가

- (사이버거래 등 新 유통 확대)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확대,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 전국 정육식당(400개소) 등 우수판매장 Map 제작·공개와 부분육 경매시장 확대 등으로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 사이버거래소(aT) 거래규모 : ('15) 7,730억원 → ('20) 1조 800억원

*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 ('15) 79억원 → ('20) 180억원

-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 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

하여 현행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앞으로는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 (현행) 지육 경매가격 → (개선) 부위별 도매·소매 가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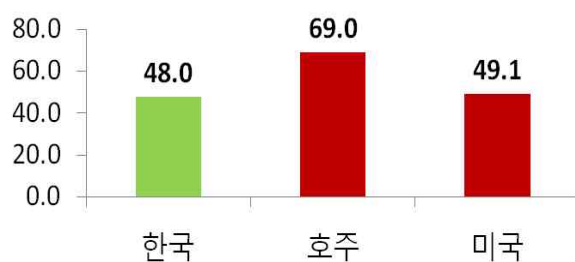
- 축산물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연1회에서 분기별 1회 정보제공 주기를 확대하며, 축산물 등급판정·쇠고기 이력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학계·연구원의 Big Data 분석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 축산물유통 정보제공 강화 : (현행) 연간 1회 → (개선) 분기별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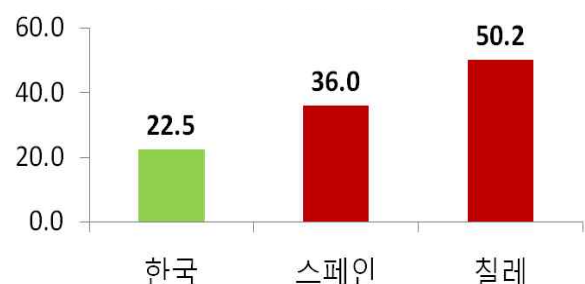
- (수입육 유통 파악·공개) FTA 체결 확대로 수입육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육 도입가격 대비 소매단계 판매가격과의 차이인 국내유통비용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 쇠고기(목심)와 돼지고기(삼겹살)의 국내산과 수입산 유통비용을 조사결과 한국산 보다 호주, 미국, 스페인, 칠레산의 유통비용(유통마진)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
- '10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하여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공개한다.

<쇠고기(목심) 유통비용률>



<돼지고기(삼겹살) 유통비용률>



* 축산물품질평가원 '15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조사지역 평균

* 국내산: (소비자가격-식육포장처리업체판매가격)/소비자가격, 수입산: (소비자가격-도입가격)/소비자가격

- (수급·가격)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 의무 가격보고제” 도입을 검토한다.

○ 셋째, 생산자·소비자 편의 증진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정비) 쇠고기 등급판정제도는 정육량 예측치를 제공하여 폐기되는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마블링 위주의 육질등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쇠고기) 육량은 정육량이 많은 소를 생산, 농가 경영비 절감, 소비자는 적정 품질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16. 12월 대국민 의견조사 예정)

·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기계 판정 도입을 위해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육가공산업 활성화) 20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7천개소의 약 20%인 12천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 및 창업 유도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집을 보급하며

· 육가공품 수출을 2020년 20백만불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역·위생협상에 선제적 대응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체 수 : ('15) 8.3천개소 → ('20) 12천(57천개소의 20% 수준)

* 육가공품(소시지, 캔햄) 수출 : ('15) 11백만불 → ('20) 20백만불

-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및 부가가치 제고)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부산물 거래방식을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혈액자원화를 추진한다.

* (현행) 대부분 1년 단위 수의계약 → (개선) 공개경쟁 입찰

* 혈액자원화시설(1개소) 신규 지원('17년 수요조사, '18~'19년 시설설치)

○ 넷째, 유통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1,003억원/년 추정)한다.

* (현행)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9종 → (개선) '거래정보통합 시스템' 통합증명서 1종

-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하여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 등급별 정산 시 예상 수취가격 제공 등 등급별 정산 확산

□ 농식품부는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산지도매-소비자 가격 연동성제고 등의 금번 대책을 통해 유통경로별 경쟁체제 강화하여 유통효율화 도모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 9,670억 원 증가, 부가가치는 8,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8,84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 후속조치로 '17.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 ◇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의 명의변경, 쪼개기·편법개발 근절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확대·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 은행법 동일인 기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조합·단체의 임원 등
-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또한,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문제사례) ① 00시의 경우 공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공정이 추가되었으나 환경영향 검토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민원발생

② 공장에서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접 공장부지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영향에 따른 민원발생

□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 전략평가 대상계획 중에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실행적 성격의 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으나,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 또한,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조개기·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강화**(안 별표 4)
 - (현행)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에서 연접하여 추가 개발하는 경우만 명의변경, 필지 분할 등의 조개기 사업 예방('15.12.30)
 - (개선)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건으로 동시에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여부 판단**
 - ※ 명의 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환경영향평가 회피 악용사례 예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고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기준 규정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 규정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조정**(안 별표 2)
 - (추가)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환경영향이 크거나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
 - (전환) 실행적 성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합리적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체육시설사업계획·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등 4개 계획
 - **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계획 등은 기존대로 SEA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안 별표 3)
 - (추가)「군사기지법」에 의한 **군사기지 밖 비행장활주로 등 군사시설 설치사업**
 - ※ 현재 군사기지 안의 군사시설만 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법률 사각지대 발생
 - (추가)「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시설**(20만㎡ 이상)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주요 악용사례는?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허가 신청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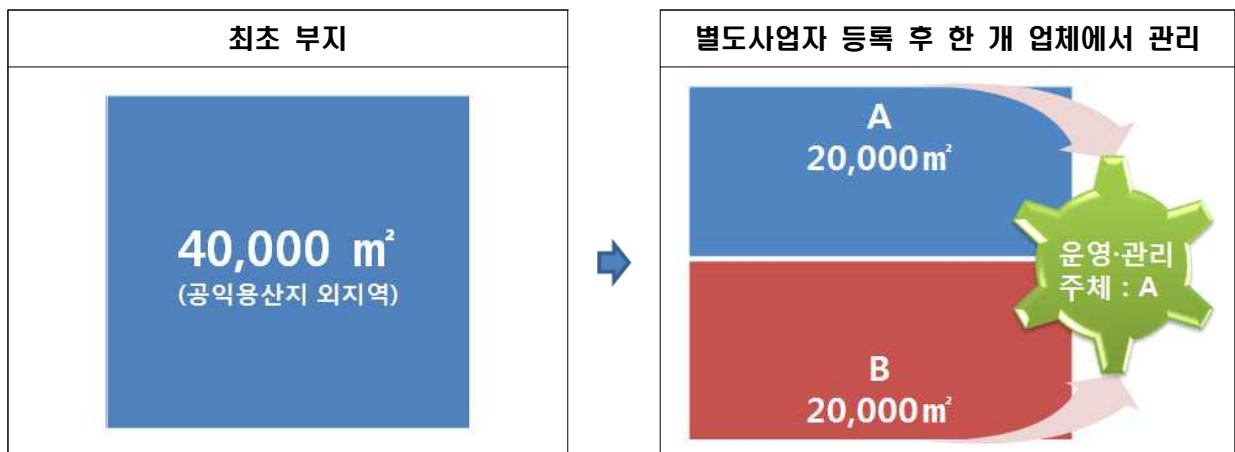
- 면적 : 40,000㎡(공익용산지 외지역) * 30,000㎡ 이상 협의 대상
- 사업자 : A, B법인
- 사업내용 : 토석채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

- A법인 단독으로 사업시행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B법인을 신설(친·인척 및 동업자 명의)
- 이후, A법인과 B법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으로 각각 토석채취 허가 신청(A법인 20,000㎡, B법인 20,000㎡)

⇒ (문제점)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A법인이 전체부지(40,000㎡)에 대한 토석채취 사업을 시행하는 등 B법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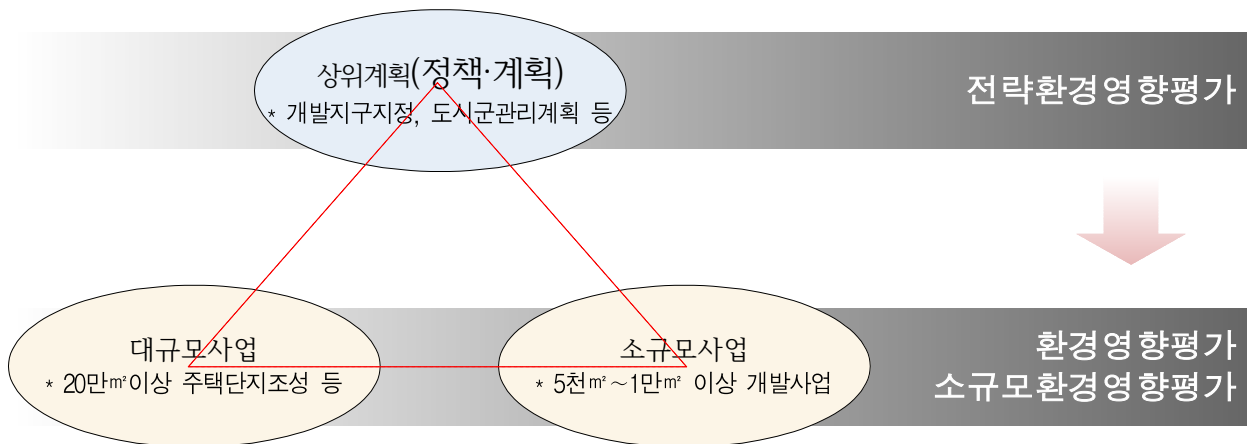
- 우수한 식생의 훼손 여부,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취락지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평가를 회피함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2.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금년에 개선한 내용 중 달라진 내용은?

- 작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은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허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에 연접(직선거리 50m 이내)하여 추가로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 그러나, 동시에 허가·승인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 ①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사업자의 배우자, 6촌혈족, 4촌인척, 출자조합·단체, 본인의 고용자 등)
 -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인
 - 사업자가 승인 등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
 -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
- 금년에는 여러 건으로 쪼개어 동시에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도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여부 판단하도록 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편법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인허가승인 등이 수반되는 개발이 될 경우,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강구
 - *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농림지역 7.5천㎡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 (환경영향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기술자격, 학력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술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을 부여받은 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 투자기업이 앞장선다!

- 노사발전재단, 외투기업대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016년 11월 30일(수) 13시 30분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R&DB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코트라(KOTRA)가 함께 개최하였으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제도’ 등 정부정책 소개와 함께 ‘하반기 근로감독 방향’ 및 ‘외투기업 움부즈만 제도 소개 및 고충해결 사례’ 등 외투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2015년부터 재단과 고용노동부, 코트라는 지역에 거점을 둔 외투기업에 대해 지역·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정보접근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고용촉진지원금 및 ‘16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였다.

-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외투기업은 자본유입, 고용증진, 기술이전 등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외투기업들이 정부정책 및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 “앞으로도 외투기업에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외투기업 특유의 긍정적 조직문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족친화경영 평가' 확산

-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2016년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현장 모니터링' 성과포럼을 개최하고,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한다.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및 지역 연구기관 등과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가족친화경영 및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이 반영되는 등 지자체별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발굴됐다.
- 201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광주광역시는 “여성가족 친화시책(0.3점)”을 반영하였고 2017년에는 “여성대표성 제고(0.4점)”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가족친화인증 참여”(0.4점), 인천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 참여(0.2점)“, 대구광역시는 “가족친화 인증”(가중치 1점)을 정성지표로 포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력유지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인천) 제정을 논의중이며, “대구광역시 일·가정양립 중장기계획 수립” (대구)을 추진키로 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고용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 한편, 인천과 대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시퇴근문화 및 유연근무, 가족 돌봄휴가 등을 제도화 하는 사례와 같이 여성의 경력유지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발굴하였다.

김경환 차관, “강원도, 스마트헬스케어 규제프리존 협조” 당부 남원주 역세권 방문...강원도 전략산업 거점 성장위해 정부-지자체 협력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 23.(수)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강원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청취하고, 스마트헬스케어 규제프리존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김 차관은 “지역과 중앙이 힘을 합쳐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강원도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언급했다.
- 김 차관은 이어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전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가 강원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본격 사업 개편

- 12. 1. 수협은행 독립법인화, 사업구조 개편 등 국민신뢰도 제고 기를 마련 -

12월 1일(목)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 수협중앙회가 본격 출범한다.

그간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하여 2010년 도입한 바젤Ⅲ*를 우리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수협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되었다.

* 자기자본비율 8% ↑, 보통주 자본비율 4.5% ↑, 기본자본비율 6% ↑ 유지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2012년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협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협 사업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3년 9월에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8월 수협은행에 대한 부족자본 조달비용 보전 등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수협 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해수부와 수협은 이후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16.6)하여 하위 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부족자본 조달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 수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정관 제·개정, 조합 정관(레) 등 고시 9건 제·개정, 훈령 5건 개정 등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한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독립법인화한다. 현재 1조 1,500억원대인 자본이 2조원대로 증대되면 현 6백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2021년에 1,300여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하여 우리 어업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자본 확충으로 경영이 더욱 안정되고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 지배구조 개편

-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 단축(4년 → 2년),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4명) 등 경영의 책임성 강화
- * 이사회 슬림화 : (현) 28명 → (변경) 22명 이내

2. 경제사업 활성화

- 수산물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합·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설치, 매년 평가하여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
- * 평가협의회(9명) : 수산단체대표 1, 유통·어업전문가 1, 수협 조합장등 3, 정부 1, 연구기관 등 1, 기타 전문가 1
- 또한, 경제사업담당 상임이사를 두어 경제사업 부문을 전담토록 하고 신분 보장 및 책임성 제고

3. 신용사업을 독립법인화

-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
- 수익성 제고 : ('15) 585억원 → ('28) 1,300억원 수준

4. 공적자금 출자구조 변경

- '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11,581억원)을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거쳐 수협은행에 출자*
- * (현행) 예보 → 중앙회 신용사업 우선출자 ⇒ (변경) 예보 → 중앙회 신용사업 특별회계 우선출자 → 수협은행 출자

- 공적자금 상환 : 수협은행 →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배당 → 예보
공사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

5. 정부 지원

- 부족자본 지원 : 수협은행 추가 자본 확충 9천억원 중 5,500억원
차입비용을 5년간 정부에서 지원(연 103억원, 총 515억원)
 - * 11.7 정부 지원분 5,500억원 조달을 위해 수산금융채권 기 발행(5년물)
- 조세 감면 :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관련
세법 등 개정('16.11)
 -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